

# 방어율 0.83 ... 유동훈 '불펜 에이스'

## 중간계투·소방수 ... KIA 마운드 지켜낸 숨은 주역

### 1999년·2004년 이어 제3의 전성기...올 8승 욕심



'임시 마무리' 윤석민의 선발 전환과 한기주의 부재 속에 마무리가 없던 지난주, KIA 타이거즈는 SK 와이번스와 LG 트윈스와의 물리칠 수 없는 한 관 승부를 앞두고 '집단마무리'라는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다.

팬들의 우려와 달리 KIA는 6연전 원정길에서 4승을 안고 홈으로 돌아왔다. 1승1세이브를 거두며 위기의 마운드를 지켜낸 유동훈은 보이지 않는 수훈선수다.

1일 현재 유동훈은 24경기에 출격해 3승 2패 1세

이브 6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LG전에서 조인성에게 솔로 홈런을 맞기 전까지 11경기 무실점 행진을 펼치면서 평균자책점은 0.83으로 묶였다.

마무리 공백이 크게 느껴졌던 지난주 유동훈은 세 차례 마무리로 마운드에 올랐고, 팀은 이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다.

군입대로 2004년 이후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던 유동훈은 지난 시즌 마운드로 돌아왔다. 서른 돌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낫선 코칭스태프와 한참 어린 후배들과 새로 야구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늘 마운드를 그리며 운동을 쉬지 않았던 유동훈은 제대 후 곧바로 팀에 합류해 불펜을 지켰다. 복귀 첫해였던 지난해 유동훈은 3.43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3패2세이브9홀드를 기록했다.

의욕이 앞서 일찍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하반기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3년간의 공백에 비하면 훌륭한 성적이었다.

지난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유동훈은 천천히 시즌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또 4월4일 첫 등판을 시작으로 10경기에서 '0'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유동훈은 부쩍 자신감을 얻었다.

마운드 맨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발 투수와 달리 항상 대기하며 마운드에 올라야 하는 불펜 투수지만 '불펜의 큰형'으로서의 역할과 기대를 알고 있기에 유동훈은 묵묵히 팀의 순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즌 시작 전 유동훈은 20홀드를 목표로 세웠다. 2일 마무리 한기주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유동훈의 보직이 유동적인 만큼 20홀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팀의 승리가 우선인 만큼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 하지만 꼭 하나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다. 데뷔 첫해인 1999년과 군입대 전인 2004년 기록했던 7승을 넘어 8승 고지를 밟아보는 게 투수 유동훈의 욕심이다.

순탄치 않았던 야구 인생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마운드에 우뚝 선 유동훈이 '불펜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동훈)

# “내년엔 대전에서 만나요”

## 전국소년체전 어제 여수 등서 폐막

### 광주 금 14 '부진'·전남 금 30 '선전'



'내년에 대전에서 만나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구호아래 여수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가 4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16개 시·도 1만7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 등 33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광주는 금 14, 은 7, 동 30개(비공식 순위 14위)를 획득했으나 당초 목표(금 22, 은 21, 동 17개)에는 못미쳤다. 반면에 전남은 금 30, 은 19, 동 45개(비공식 순위 8위)로 목표(금 30, 은 24, 동 39개)는 무난히 달성했다.

광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2일 신광중이 정구(여중 단체), 대상초는 야구(남초 단체) 그리고 광주체육중 박찬명이 레슬링(자유형 100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남도 이날 전남선발이 정구(남중 단체), 목포하당초와 순천팔마중이 배구에서 각각 우승했으며 북성에서 김종진(여수중고중·폐더급)과 천성현(전남체육중·스물급), 레슬링에서 정민(함평중·자유형 63kg급)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는 전략종목으로 꼽았던 레슬링·양궁·체조·태권도·육상·수영 등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다 메달 획득이 가능한 역도에서 동메달 5개에 그치게 아쉬웠다.

하지만 광주는 입상 종목 수가 지난해보다 4개 더 늘어난 21개로 종목별 저변확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는 기초종목인 육상·수영에서 우수 선수 육성책 강구와 레슬링·체조 등 전통 강세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성팀 육상을 위한 팀 창단과 '1학교 1운동'의 지속추진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유도·복싱 등 투기종목에서 예상 밖의 금메달 획득과 인라인롤러·볼링·배구의 선전이 목표 달성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레슬링·태권도·역도 등에서 중점관리 대상 선수 50명을 집중 지원한 것과 금메달 획득 지도자들에게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기진작책도 목표 달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금메달이 확실시되었던 사격·역도·육상 등 기록종목과 축구·정구 등 구기종목의 부진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전남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다관왕 종목에 대한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전통 강세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39회 전국소년체전은 내년 대전에서 열린다. 다음은 광주·전남 종목별 최우수선수.

◇광주 ▲볼링=김한용(남중·월계중) ▲야구=나승호(초등·대상초) ▲정구=김지현(여중·신광중)

◇전남 ▲유도=황인용(남초·순천신홍초) ▲인라인롤러=김찬호(남초·광양계철초) ▲씨름=이 건(남초·관산초) ▲볼링=이다정(여중·고흥여중) ▲정구=이성원(남중·육곡중) ▲배구=이윤정(여초·목포하당초), 이근식(남중·순천팔마중)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순천팔마중이 2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배구 결승에서 부산동래중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확정지은 후 감독을 행거에 치며 환호하고 있다.

# “임창용 뜨면 무서워”

## 日 퍼시픽타자들도 공포의 대상 평가

임창용(33·야쿠르트 스왈로스)이 일본프로야구 인터리그에서 퍼시픽리그 타자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포츠포스트' '스포츠타임즈' 등 일본 스포츠전문지는 2일 인터넷판에서 야쿠르트와 인터리그 2연전을 앞둔 세이부 라이온스의 와타나베 히사노부 감독이 제비군단 수호신 임창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투수 출신인 와타나베 감독은 "야쿠르트의 계투진은 좀처럼 공략하기 힘들다. 특히 (임창용이 등판하는) 9회는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불펜이 좋기에 6회 이전에 대량 득점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본 대표팀 주전 유격수로 뛰었던 나가자마 히로유키(세이부)도 당시 한국대표팀 마무리 임창용을 의식한 듯 "임창용은 대단한 투수다. 임창용이 등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팀으로서 임창용이 마운드에서 나서지 않도록 경기하면 문제없다"고 두려움을 나타냈다.

임창용은 1일까지 센트럴리그 세이부 순위에서 잠시 2위로 밀렸지만 20%이닝 동안 실점 없는 완벽한 투수로 15세이브를 거뒀다. 지난달 19일부터 열린 인터리그에서는 세이브 2개를 올렸다.

지난해 일본시리즈 정상을 밟았던 세이부는 7일 요미우리 인터리그 경기에서 제구력이 불안한 상대 마무리 투수 마크 크론을 상대로 연장 10회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고 역전승을 거뒀다.

세이부가 센트럴리그에서 이룬 소방수 크론을 정복했지만 임창용은 공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만 봐도 이미 임창용이 '미스터 제로'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얻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 추신수 2안타 2도루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안타를 때리며 타율 3할대에 재진입했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에 우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 2안타를 쳐내며 도루 2개를 더했다.

타율은 0.296에서 0.301(183타수 55안타)로 올랐다. 2회말 첫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말 2사주 주자없이 두 번째 타석에 나와 초구로 3루쪽 기습번트를 대 안타를 만들어냈다. 양키스 3루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맨손으로 번트 타구를 잡았지만 코스가 가까워 1루에 던지지도 못했다. 추신수는 곧바로 2루를 홈런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하지 못했다.

1-5로 뒤진 7회말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양키스 선발 조바 챔버레인의 빠른 볼을 끌어당겨 우전 안타를 쳐냈다. 후속타자 땅볼 때 2루에 간 추신수는 3루 도루를 감행, 베이스에 안착했다. 이날 하루 시즌 7, 8호 도루를 잇따라 성공시켰다. 이전까지 추신수의 한 해 최다 도루는 2006 시즌 6개.

추신수는 1사 3루에서 마크 데로사의 유격수 땅볼 때 홈을 밟았다. 추신수의 발로 만들어진 점수였다. 9회말에는 양키스 마무리 마리아노 리베라를 상대로 8구까지 끈질긴 승부를 펼친 끝에 151km짜리 커터를 맞췄지만 바운드가 큰 투수 땅볼로 아웃됐다. 클리블랜드는 챔버레인의 후투에 4안타밖에 뽑지 못해 2-5로 졌다. /연합뉴스

# “2승 내가 먼저”...KPGA 내일 개막

한국프로골프(KPGA) SBS코리아투어 금호아시아나 제52회 KPGA 선수권대회(총상금 5억원)가 4일부터 4일간 경기도 용인시 아시안아일랜드(파72·6천750야드)에서 열린다.

올해 5개 대회를 치른 한국프로골프에서 매 대회 우승자의 얼굴이 달랐다. 개막전으로 열린 한중투어 KEB인비테이셔널에서 이태규(36·슈페리어)가 우승했고 토마토저축은행오픈에서는 강국순(43·안양베네트스)이 정상에 올랐다. 30대 중반 이후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던 4월이 지나면서 20대 선수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5월에 열린 매경오픈, SK텔레콤오픈, 레이크힐스오픈에서 차례로 배상문(23), 박상현(26·양드레임골프), 재미교포 홍창규(28)가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따라서 6월 첫 주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2승을 거두는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프로골프는 작년에도 2승을 거둔 선수가 다승왕을 차지하는 등 2승 이상을 끌어담는 '절대 강자 실종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승 이상을 올릴 선수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배상문이 꼽힌다. 매경오픈 우승 이후 SK텔레콤오픈 3위, 레이크힐스오픈 8위 등 꾸준한 성적이 돋보인다. 특히 SK텔레콤오픈이 끝난 날 일본으로 건너가 US오픈 지역 예선을 치르고 돌아와 다시 레이크힐스오픈에 나서는 강행군 속에서도 8위를 차지했다.

SBS-TV가 2라운드와 대회 최종 라운드를 생중계하고 골프 전문 케이블 위성 채널인 SBS골프가 1,3라운드를 생중계한다. /연합뉴스